

충성대신보

제 192호
2022년 1월 3일 월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 02 학교소식 | 제36대 학교장 고창준 소장취임
- 05 학교소식 | 전·출입 및 전역·퇴직자
- 08 생도광장 | 생도대 대나무숲
- 11 오피니언 | 사회 저명인사칼럼
- 14 동문소식 | 동문(同門)의 소리
- 16 발전기금 | 발전재단소식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고창준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황수현 / 논설위원 황수현 송경재 민병후 / 편집담당 길진규 / 편집국장장생도 이경미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

192호 사진제공 및 편집 : 병장 노승찬, 상병 강건, 박종원, 일병 이청하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제36대 육군3사관학교장 고창준 소장 취임

“정예장교 양성과 혁신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진력할 것” 밝혀



▲ 남영신육군참모총장(왼쪽)이 신임 육군3사관학교장 고창준 장군(오른쪽)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학교는 12월 17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6대 고창준 학교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학교장으로 취임하는 고창준 소장은 3사 26기로 임관하여 6군단 참모장, 3사관학교 생도대장, 37사단장 등 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벼장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준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올바르고 유능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스마트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취임 일성으로 ‘사람 중심 · 가치 중심의 혁신적인 충성대’를 제시하였다.

이임한 장광선 소장은 지난 2021년 8월 부임한 이래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인재육성과 학교의 외연 확대에 힘써왔으며, 중장으로 진급해 2군단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한편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외부 초청 없이 자체 인원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사관생도, 美8군사령관과의 첫 만남 전장 리더십과 야전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



▲ 미8군사령관 윌러드 벌러슨 중장이 학교 충성강당에서 생도대상 강연을 하고 있다.

학교는 지난 11월 19일, 美8군사령관 윌러드 벌러슨(Willard M. Burleson III) 중장을 초청해 ‘전투준비와 전장리더십’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생도들의 전장 리더십과 야전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된 특별 강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연에 앞서 벌러슨 사령관은 생도들의 충성심과 명예심 고양을 위해 충성의식을 참관하고, 향후 군사영어프로그램 지원과 군악대 정례공연 등 교류협력 활동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벌러슨 사령관은 생도들에게 ‘부대원들에게 만반의 전투준비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필요시 부대원들과 목숨까지 내놓고 싸울 준비가 되어있

는가?’ 라고 질문하며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강조했다.

또한, 벌러슨 사령관은 T.R 페엔바크의 저서 「이런 전쟁」의 사례와 아프가니스탄의 근무경험을 통해 전장 리더십의 핵심은 ‘부대원의 단결력과 신뢰’라고 당부하며, 이를 위해 ‘존엄으로 전 장병을 대하고 항상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생도들의 미래 연합작전능력과 리더십 합양을 위해 美19지원사, 美해병대 캠프무적과 군사영어·군사훈련 교관 지원,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등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美8군사령관 방문을 통해 상호교류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위 박광선

1

전국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국방부장관상 수상

57기 허성오 생도, '신속한 대응과 정당한 대응' 주제로 최우수 성적 거둬

4학년 허성오 생도(군사사학과)가 지난 11월 5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20회 전국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시상식에서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육군사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POSTECH)가 공동 주최하고 육군본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안보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 유도와 육군 정책 및 안보 현안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청년, 대한민국의 안보와 육군의 미래를 논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국내 5개 사관학교와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포함한 국내 주요 34개 대학, 대만 공군사관학교, 일본 방위대학교 학생 등 1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허성오 생도는 '신속한 대응과 정당한 대응: 국방과 외교적 측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방과 외교라는 안보의 두 주축에서 '신속한 대응'과 '정당한 대응' 방법을 제시하여 최고점을 받아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입상한 허성오 생도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22년 1월 16일부터 6박 7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기구 인턴 체험기회도 주어지며 국제기구의 안보 관련 연구부서 활동에 대한 실무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현 코로나상황과 관련 스위스 측 요청으로 해당 연수는 취소되었습니다.

대위 박광선

육군사관학교 학교장으로부터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는 허성오 생도



1

2

국방부 주관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에서 두각

KAAY 1팀(57기 이석훈, 이도훈, 김성중), 화이트햇 콘테스트 2등 수상

컴퓨터과학과 4학년 전공생도 9명(팀당 3명, 총 3팀)은 10월 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사관생도 부문에 참가하여 그중 KAAY 1팀(57기 이석훈, 이도훈, 김성중)이 2등을 수상했다. 행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국방부 주최·사이버작전시령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는 '함께하는 강력한 사이버 국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화이트햇(White Hat) : 악의적 목적이 아닌 공격 예방 차원에서 시스템을 분석하고 공격 기술을 만드는 보안 전문가

생도들이 참가한 이번 콘테스트는 본 대회와는 별개로 사관생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로 진행되었으며, 총 9팀(육군3사관학교 3팀, 육해/공군사관학교 각각 3,2,1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KAAY 2팀(57기 권복선, 이동현, 전소연): 3등, KAAY 3팀(57기 황인지, 이현택, 최준우): 6등 한편, 사이버 공모전 결과 57기 이석훈 생도가 학생 패널로 최종선발되어 '함께하는 사이버 국방, 디지털 뉴딜시대 사이버전의 모습과 미래' 주제의 토의에 참석해 발표를 진행하며 자리를 빛냈다.

주무관 길진규

2021 화이트햇 콘서트 사관생도 대상 번외 대회에서 2등을 수상한 57기 이석훈, 이도훈, 김성중 생도



2



김유진 생도(우)가 손창호 지도교수(좌)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학교장(소장장광선)과 SKT 군 지원센터 관현주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4

3 전국 대학생 우수논문 공모전 장려상 수상

4학년 무기시스템공학과 김유진 생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체계 진단'

4학년 김유진 생도(무기시스템공학과)가 11월 23일 한양대 학군단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에서 주최하고 국방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통적 안보위협과 코로나19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차세대 리더인 대학생·사관생도들의 국방안보 관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4월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60여 편의 논문이 제출됐다. 연구소는 11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해 한양대에서 발표회를 열었으며, 그중 김유진 생도가 공동 4위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주무관 길진규

4 SKT 군 지원센터 MOU 체결

학교는 11월 16일 SKT 군 지원센터와 민·군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협력 및 지원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관현주 SKT 군 지원센터 대표이사는 협약체결에 앞서 1,00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 대형 청소기 등을 기증하고,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SKT 군 지원센터는 학교 장병 및 생도들을 대상으로 분기(또는 반기) 단위 무상수리 출장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무관 길진규

5

생도생활을 바꾸는 7분의 시간

자신감 배양 및 발표력 향상, 긍정적 생활 유도를 위한 지적 향연의 장

생도대는 지난 12월 3일 충성강당에서 57·58기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민영 콘텐츠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를 모티브로 한 '생바시(생도생활을 바꾸는 7분의 시간)'를 진행했다.

생도대장(준장 임국기)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생바시는 사관생도들의 자신감을 배양하고 발표력 향상과 더불어 긍정적인 생활 유도를 위해 마련되었다. 일반학·군사학·인문학·생도생활 경험담 등의 주제를 가지고 사관생도 중 희망자 7개 팀이 발표를 전개했다.

생바시 발표에 참가한 57기 권도현 생도는 "다양한 주제의 발표들이 생도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와 활력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무관 박원 형

동료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57기 권도현 생도



토크콘서트 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모습



수탁교육 중인 간호사관학교 생도들

7

국군간호사관학교 군사훈련 수탁교육

학교는 지난 11월 1일부터 2주간에 걸쳐 국군간호사관학교 1·2학년 생도 176명을 대상으로 군사훈련 수탁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수탁교육에서 간호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은 각개전투·개인화기·수류탄 등 군 기본훈련을 중점으로 실시하였으며, 2학년 생도들은 분대전투·독도법 등 소부대 전투기술 훈련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의 높은 교육 참여도와 열정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학교는 간호사관학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정예장교양성에 함께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무관 길 진규

6

'함께 꾸는 꿈' 생도들의 토크 콘서트

생도 역량 강화를 위한 훈육관과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 마련

생도대는 11월 22일과 25일 이틀간 충성강당에서 57·58기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생도 역량 강화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생도대장(준장 임국기)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전 생도들과의 소통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도들에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체적인 진행은 군 생활에 대한 소회(경험, 진로 선택, 자기관리), 초급장교 역량 구비, 자유 의견(고민, 애로 및 건의사항) 등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훈육관과 사관생도 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질의응답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57기 장석수 생도는 "훈육관님들의 군인이자, 인간으로서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었다"며, 장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무관 길 진규

8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지난 11월 13일과 11월 19일, 학교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사랑의 헌혈운동'을 주제로 혈액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사랑의 헌혈운동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혈액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헌혈에 동참하고자 생도와 징병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헌혈의 집으로의 직접방문이 제한되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헌혈 버스를 이용하여 교내에서 진행되었으며, 118명의 생도와 71명의 징병이 참여하며 생명나눔의 실천을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하며 총 20번의 헌혈에 동참하게 된 4학년 김서울 생도는 "언젠가 나와나의 소중한 가족들 또한 도움이 필요한순간이 있을 것이다. 누군기에게는 소중한 가족일 그들을 위해 헌혈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헌혈캠페인에 함께하며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7기 국장생도 이 경미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참가해 헌혈하는 사관생도와 봉사



국내 문무탐방 / 기자생도 탐방기

57기, 58기 국립영천호국원, 해병대 1사단 방문



▲ 영천호국원을 방문한 생도들

57기, 58기 생도들은 지난 11월 13일(1대대)과 11월 27일(2대대) 이틀로 나누어 국내 문무탐방을 다녀왔다. 기지는 1대대 소속으로 13일에 국립영천호국원과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하였다.

조국 수호와 자유·평화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안장하고 있는 국립영천호국원. 호국원은 2001년 1월 영천 호국용사 묘지관리소로 개원한 이후, 2006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현충탑 참배 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묘비 닦기 봉사활동을 하며, '보훈의식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의미를 되새겼다. 이후 낙동강 전선 마지막 대전투인 '영천지구전투'를 주제로 전시토의를 진행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충성대로 다시 복귀하였다. 오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식사를 마치고 해병대 1사단상륙장갑차대대를 방문하기 위해 충성대를 나섰다.

상륙장갑차대대에 도착하자 부대의 간부들이 생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부대 간부들의 인솔 하에 상륙장갑부대의 상징인 상륙돌격장갑차(KAAV)로 이동하여 장갑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지난국군의 날 행사 때 피스메이커 작전에서 보았던 KAAV를 실물로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 해병대간부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생도



▲ 동기들과 함께 해변을 찾은 잠깐의 여유

KAAV 관람을 마치고 해변에서 잠시 동기들과 사진을 촬영하며 잠깐이지만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해병 1사단탐방은 미래의 합동작전을 이끌게 될 장교로서 우리군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문무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깨달은 것이 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귀한 영웅들을 생각할 때 위인전 속에 박제된 인물이듯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의 아버지,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고민과 감정을 생각하게 되었고,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바친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장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정진해본다.

기자생도 57기 장석수, 58기 김관우

11, 12월 학교 간부 전 · 출입 및 전역 · 퇴직자 명단

전입 육군3사관학교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생도대 생도여단장 대령 김용태
- 행정부 행정부장 대령 김의진
- 학교본부 교무기획실장 대령 백동균
- 행정부 지원처 출납장교 중위 윤진석
- 행정부 지원처 군수계획과장 중령 주재신
- 학교본부 교무기획과장 중령 강훈
- 생도대 생도여단 생도 1대대장 중령 신용철
- 교수부 인문학처 심리학과 교수 중령 강용관
- 교수부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령 이강경
- 행정부 인사행정처 주거시설담당 9급 천성울
- 교수부 공학처 건설공학과 교수 소령 김도윤
- 생도대 5훈육대장 소령 김희준
- 생도대 생도여단 생도 2대대장 중령 이훈석
- 생도대 군사훈련처 전술학교관 소령 김강연
- 생도대 교육지원대대장 중령 김태희
- 교수부 공학처 건설공학과 교수 중령 심재춘
- 교수부 인문학처 심리학과 교수 중령 이정훈
- 생도대 6훈육장교 대위 이기호
- 생도대 3훈육장교 대위 김기쁨

- 생도대 여훈육장교 대위 이선우
- 생도대 2훈육장교 대위 조홍재
- 생도대 6훈육장교 대위 정택인
- 생도대 1훈육장교 대위 이광훈
- 생도대 교육지원대대 주임원사 원사 이경우
- 학교본부 학교장실 행정지원담당 9급 정하윤
- 학교본부 평가관리실 인사관리담당 9급 이효정
- 학교본부 충성대연구소 예산/행정담당 9급 임재경
- 행정부 인사행정처 주거시설담당 9급 천성울
- 생도대 생도대장실 행정지원담당 9급 조다영
- 생도대 운영기획처 예산담당 9급 김희제
- 생도대 체육학처 교육지원담당 9급 조민식
- 교수부 인문학처 교육지원담당 9급 김중현
- 교수부 사회학처 교육지원담당 9급 김지연
- 교수부 공학처 교육지원담당 9급 이휘진
- 교수부 이학처 교육지원담당 9급 오도경
- 근무지원단 본부 인사담당 9급 김효주
- 근무지원단 정비근무대 공병/일반장비정비담당 9급 김태정
- 근무지원단 정비근무대 굴착기운용담당 9급 김병목

- 근무지원단 정비근무대 굴착기운용담당 9급 김재찬
- 근무지원단 정비근무대 구난차량운전담당 9급 배중희
- 근무지원단 보급근무대 1·3중 담당 9급 최혜경
- 근무지원단 보급근무대 2·4중 담당 9급 정재명
- 근무지원단 정비근무대 수리부속보급담당 9급 김인영
- 근무지원단 영선대 전기설비담당 9급 손상훈
- 근무지원단 영선대 발전기운용담당 9급 홍진문
- 생도대 운영기획처 정보/작전담당 7급 김수안
- 근무지원단 영선대 시설안전담당 9급 황세민
- 근무지원단 영선대 응급담당 9급 김경민
- 근무지원단 정보통신대 정보체계담당 9급 정지숙
- 근무지원단 정비근무대 교통신련장비담당 9급 서지은
- 행정부 군수계획처 환경담당 9급 인영수
- 근무지원단 본부근무대 복지시설관리담당 8급 이현정
- 근무지원단 본부근무대 병영식당관리담당 9급 구유경
- 근무지원단 병원 치위생담당 9급 박세정
- 근무지원단 병원 응급구조담당 다군 노현주
- 근무지원단 영선대 전기담당 7급 김영주

전출 육군3사관학교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 행정부 지원처 지원처장 대령 안진용 → 인참부
- 행정부 행정부장 대령 김태호 → 특전사
- 근무지원단 본부 운영과장 중령(진) 이승현 → 2작사
- 생도대 군사훈련처 전술학교관 중령 이두진 → 2군단
- 생도대 교육지원대대장 중령 최대집 → 기참부
- 생도대 군사훈련처 일반학과장 중령 김용식 → 특전사
- 생도대 3훈육장교 소령 박수만 → 25사단
- 생도대 5훈육장교 소령(진) 허진훈 → 육군대학
- 생도대 생도여단 생도 1대대장 대령(진) 김경철 → 연합사
- 교수부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령 문장권 → 인사사

전역 퇴직 영광스러운 전역·퇴직을 축하드립니다 ♥

- 교수부 사회학처 경제경영학과 소령 이정열
- 교수부 전문군무경력관 기군 양성우



코로나속 학교의 작은 변화 군대의 꽃, 면회

57기 기자생도정용수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학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바로 외출, 외박이 통제되고 면회가 생기면서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색다른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군대의 꽃은 가히 면회라 할 수 있다. 추운 겨울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생도들은 가족들과의 면회를 통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 속 자그마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 생도와생도 부모님께 면회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Q 군대의 꽃은 면회라 할 수 있는데 면회를 해보면서 어떠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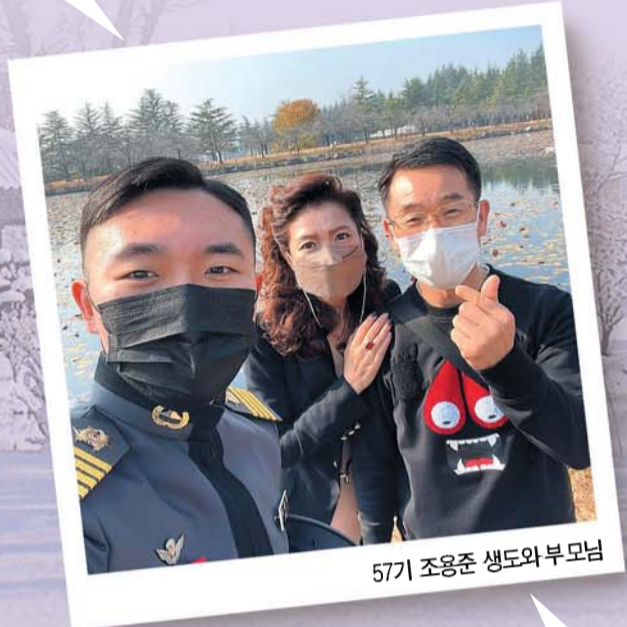
A. 코로나 상황으로 휴가 때만 부모님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면회가 가능해지면서 저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학교시설은 이렇다 등 소개를 해드리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고, 학교에서 부모님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활력소가 됨과 동시에 남은 시간도 열심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기 정용성생도



58기 김영민 생도와 여자친구

A. 저는 여자친구와 면회를 하였는데 사회에서 만나는 것과 달리 색다른 경험이 된 것 같고 여자친구가 먼 곳에서 면회를 와주는 것 만큼 미안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항상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더 열심히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58기 김영민생도

A. 부모님이 먼 강원도에서 오셔서 매우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손수 마련해오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고민, 부모님의 이야기 등 전화로는 전할 수 없는 마음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생도 생활 최선을 다해 멋진 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57기 조용준 생도



57기 조용준 생도와 부모님

Q 아들과의 면회 어떠셨나요?

A. 하나밖에 없던 귀한 아들이 군대에 보내고 잘할 수 있을까, 잘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얼굴마저 많이 못 봐서 아쉬웠는데 면회가 가능하게 되면서 입교식 이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아들의 학교를 방문하면서 아들이 잘 지내고 있어 안심도 되었으며, 자랑스럽고대견스러웠습니다.
57기 조용준 생도부모님

준비하라, '너의 이름 앞에 사관생도'!

충성대에도 나무들이 허물 벗고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계절이 돌아왔다. 새끼 호랑이들은 이제 어엿한 호랑이들이 되었고, 이제 다시 새끼 호랑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59기 예비생도들은 2022년 1월 13일 기입교를 시작으로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을 통해 진정한 사관생도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선배 생도인 57기와 58기 역시 지도 생도를 선별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휴기도 반납하며 집체교육을 통해 59기들에 대한 완벽한 지도와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생도 생활은 인내와 성장의 연속이다. 고 통 없이 얻는 것이 없듯 인내하고 견뎌낸 자만이 충성대에 발을 내딛을 수 있다. 선배 생도들이 많은 준비를 하는 만큼 59기 예비생도들 역시 마음가짐을 철저히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배, 동기, 후배 생도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았다.

55기 중위 노현민

저는 57기 충성기초훈련에서 기훈 2중대 중대장 생도로 임무를 수행한 중위 노현민입니다. 먼저 후배들을 위해 지도 생도를 지원해준 57기, 58기 후배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도 생도는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하고,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기훈생도들이 생도화 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훈생도들은 충성기초훈련이 군 생활의 첫 시작이며, 지도 생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 배워나갈 것이기에 사전에 준비를 잘하여 멋지고 당찬 후배 생도들을 양성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후배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56기 소위 이연경

처음 3사관학교에 입교할 때 저는 군이라는 조직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낯설고 어려웠던 기훈생도 시절, 너무 좋은 선배님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저도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지도 생도를 지원했습니다. 좋은 분대원들을 만나 행복했고, 생도 생활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임관을 앞둔 후배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에 가면 바로 느끼겠지만 3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 만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보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5소대 4분대 사랑해!

57기 사관생도 이희중

2022년 1월, 충성대의 일원이 되기 위해 이곳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59기 예비생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서운 영천의 칼바람과 매 순간 찾아오는 시련들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부딪히는 모든 시련은 스스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사관생도라는 꿈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갑시다. 참모생도인 저 또한, 자랑스러운 59기 후배생도들의 첫 발걸음을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충성기초훈련에 집중하여 당당한 충성대의 호랑이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기 사관생도 박동민

새로운 후배들을 만나다라는 설렘과 나보다 더 나은 후배를 양성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58기 충성기초훈련 분대장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후배들을 지도하고 알려주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알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저 또한 많은 성장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보낸 충성기초훈련이라 매우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성장하는 기훈생도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59기 충성기초훈련에도 소대장 생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휴가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도 생도로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보람과 기쁨은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59기 예비생도들, 현재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선배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멋진 사관생도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생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8기 사관생도 김관우

안녕하십니까? 59기 충성기초훈련에서 분대장 생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 사관생도 김관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충성기초훈련은 초심입니다. 저는 실면서 충성기초훈련을 통해 가장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호랑이굴 행사, 명예·세심의식 등을 진행하며 동기와의 끈끈했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경험들은 생도 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낄 때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초심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 생도에 지원한 이유는 후배생도들에게 생도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초심을 만들어 주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58기 생도들을 대표하는 만큼 부족함 없도록 열심히 배워서 후배생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기 기자생도 류인성, 원종량





생도들의 자율과 책임 '나는 소망한다'

우리는 지금 자율과 책임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스스로를 연마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자율(自律)이란 "남의 지배나 구속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이다. 또한 책임(責任)은 "어떤 일에 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라는 뜻이다.

세상만사에는 자기통제가 따른다. 주말에 달콤한 아침잠을 더 잘 것인지, 아니면 정신을 깨울 것인지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들조차 선택하고, 행동한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며 알차게 살아가기도 하고, 개운하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 느긋한 점심을 맞이할 수도 있다.

지금 생도들에게는 많은 자율이 주어지고 있다. 이 자율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유익하거나 해로운 습관이 만들어진다. 주말에는 아침점호가 없다. 게다가 하루에 한 번만 밥을 먹어도 된다. 저녁만 먹겠다는 선택을 하고, 주말에 계속 잘 수도 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주말의 활기를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일과가 끝나도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는다. 다음 날 겪게 될 피로를 생각해 일찍 잘 수도 있으며, 핸드폰을 붙잡고 밤을 새울 수도 있다. 체력단련도 마찬가지다. 학년 기준치를 달성하면 자율적으로 행한다. 스스로 체계적인 운동계획을 세워 기준치를 달성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모두에게 주어진 자율이지만 그것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다.

물론 민간인으로서 삶을 개척해나갈 때보다는 자율성이 있다고 할 순 없지만, 이러한 자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율이라는 자기 결정과 판단 속에 숨어 나태해지진 않았는가? 자율이 주어진 만큼 그것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 계발에 노력해야 한다. 또 노력에 그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생도 생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장교로서 임무 수행을 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율이 주어진다. 현재는 책임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지만,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의 무게도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자율 속에서 무너지느냐 단련되느냐는 생도 시절에 만든 습관에 달려있다. 미래의 정예 장교로 거듭날 우리가. 역량을 갖추기 위해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본인을 바로 세우는 자기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뜨거운 틀 안에서 자신에 맞는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는 사관생도가 되기를 소망한다.

58기 기자생도 김수현



생도대 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시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외마디 비명

공수훈련에서는 특별한 구호를 외친다. 바로 '일만! 이만! 삼만! 사만!'이다. 생도대 모 중대의 중대가 가사로 쓰일 정도로 유명한 이 구호는 강하와 동시에 외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구호가 끝나면 낙하산이 펼쳐져 있다. 즉, 강하할 때 외치면 공포를 자신감으로 변화시켜주는 마법의 문구인 것이다. 2주간의 혹독한 훈련 끝에 강하 자격을 얻은 B생도. 훈련한 대로만 하자고 다짐하고 강하 기구에 오른다. 이내 기구는 떠올라 정점에 다다르고, 자신감이 있던 B생도와는 달리 그의 앞에 있는 생도는 다리를 심하게 떨며 무서워한다. B생도는 위로의 말을 건넨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그 구호만 외치면 돼!" 말이 끝남과 동시에 강하한 앞의 긴장한 생도. 그런데, 어쩐지 모르게 뛰어내리는 자세가 이상하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일만! 이므아아아아아악!" 끝내 자신감으로 바뀌지 못한 외마디 비명이었다.

학익진

제식은 군기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동작이다. D생도는 학과 수업을 끝마치고 생도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솔자의 구령에 맞춰 하나, 둘 걸음을 옮기는 사관생도들의 제대를 보면 마치 로봇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군기를 하나 곁들이면 금상첨화. '이것이 우리의 제식이고 군기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생각에 D생도의 어깨가 으쓱해진다. 생도식당에 다다를 무렵, 한 무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제대를 갖추지도 않고 일선형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마치 학익진처럼 말이다. 하지만, 저들의 이마에 달린 계급장을 보고는 이내 납득해버리는 D생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정도 계급이 되어야지만 학익진 같은 전술을 구사할 수 있구나.'

야간체력단련

체력 수준 미달생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들은 야간 체력단련을 실시하는데, 약 30분간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 생도들은 자신의 미달성 종목에 대한 운동을 실시한다. 야간체력단련의 목적은 생도들의 체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생도들은 이 시간이 썩 달갑지 않다고 생각한다. 날씨도 춥고 몸도 지친 때라서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열심히 한다 해도 체력이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그 생도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정말 노력했는데 안된 건가요? 남들보다 노력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멋있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도 사관생도의 덕목이지 않을까요?

경험의 차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출과 외박이라고는 꿈도 못 꿰본 57기, 58기 생도들. 그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영천 내 외출을 시행한다.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영천 내의 확진자는 없고, 무엇보다 생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이 그 이유였다. 갑작스러운 외출 소식에 들뜬 3학년 생도들. 외출 생각에 즐겁기만 하다. 그런데, 옆에 있던 4학년 생도의 표정은 변함이 없다. 3학년 생도가 묻는다. "아니, 선배님. 모처럼의 외출인데 즐겁지 않으십니까?" 4학년 생도가 답한다. "조금 있어 봐." 의아한 3학년 생도가 다시 묻는다. "그래도..." 4학년 생도가 재차 답한다. "글쎄 있어 보라니까." 그리고 며칠 후 나온 전파 사항. '영천 내 확진자 발생. 금주 외출 제한.' 아뵘싸. 3학년 생도는 4학년 선배의 해안에 감탄하며 이마를 탁 치고 말았다.

57기 기자생도 주성민

제가요?

평소 인상이 험상궂기로 소문난 A생도. 하지만, 그 역시도 청춘의 시기를 겪는 한 남자였다. 고된 군사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휴가를 맞이한 A생도. 밤공기 마시기를 좋아하는 그는 밤거리로 나선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그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건넨다. "어머, 학생! 혹시 군대는 다녀왔어요?" 분위기를 파악한 A생도는 장난삼아 대답한다. "아니요. 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 "역시.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선하셨구나~" 적잖이 당황한 A생도는 마스크를 슬쩍 내리며 묻는다. "제가요...?" 그때 그의 살벌한 얼굴을 본 그녀는 그만 '푹!' 소리를 내고 만다. 서서히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A생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죄송하다는 말을 나지막이 내뱉었다고...

길 위에서

수업 이동을 위해 이동 중인 3학년 C생도. 화창한 날씨 속,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모처럼의 여유를 맞는다. 이때 뒤에서 들려오는 불같은 호통 소리. "앞에 생도!" C생도는 뒤를 돌아보고는 급히 경례를 한다. "충성!" 아차, 4학년 선배 생도의 부름이었던 것이다. "생도는 왜 여기를 걷고 있지?" C생도는 답한다. "수업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선배 생도는 더 화가 난 것 같다. "아니, 충용관 뒷길은 이용하면 안 되는데 왜 여기를 걷고 있냐는 말이야. 이 길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나?" C생도는 재빨리 대답한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선배님의 지도 감사합니다." 대화를 마치자 앞질러 가는 선배 생도. 그의 뒷모습에서 왜인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진다. 그 모습을 본 C생도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선배님은 어디를 걷고 계신가요?'



문화체육활동부서 소개 **충성대 신문사**

하늘은 높고 선선한 바람이 불던 가을도 잠시, 매서운 추위와 칼바람이 충성대에 겨울이 왔음을 실감 나게 한다. 그러나 추위도 문화체육활동부서 동아리로 가는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찬 바람을 뚫고 교실에 들어가 두런두런 들려오는 생도들의 열띤 토론과 한편에선 조용히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렇다 오늘의 첫 부서 소개는 바로 충성대신문사. 2021년이 가기 전에 기자생도인 우리가 신문사를 직접 인터뷰 해보았다.

Q.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충성대 신문사의 대장! 57기 사관생도 이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Q. 충성대 신문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충성대 신문사는 학교의 문학과들이 모여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신문을 제작하여 학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Q. 여러 개의 부서가 나뉘어 있는데, 부서별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신문사의 부서는 총 4개로 편집과 총괄을 담당하는 편집기획부, 군사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군사학술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문화부, 설문 조사를 통해 학교 생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앙케이트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Q. 신문사만의 장점이 있다면?
A. 당장 일주일 전에 무엇을 했나? 라는 질문을 누군가 제게 물어본다면 흐릿하게 나는 기억을 끄집어 더듬더듬 설명해 나가겠지만 기억이란 자연스럽게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글이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시간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저희가 제작한 신문 속에서 과거의 나와 마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글과 신문이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사는 우리 기자 생도들에게 추억의 장을 선물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신문사 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지금까지 생도 생활의 한 부분에 신문사가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며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시길 마음으로 빌어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함께 힘내봅시다. 충성대신문사 타이팅!

57기 기자생도 박군호 이규용



문화체육활동부서 소개 **유튜브 콘텐츠제작부**

충성대 신문사가 신문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면 영상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문화체육활동부서가 있다. 바로 올해 신설된 유튜브 콘텐츠제작부! 오늘의 두번째 인터뷰 대상으로 유튜브 콘텐츠제작부의 부장 생도를 만나보았다.

Q.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유콘제'의 부서장을 맡고 있는 57기 사관생도 권도형입니다!

Q. 유콘제 부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유콘제는 '유튜브 콘텐츠제작부'의 줄임말인데요. 유콘제는 저희가 짧게 부르고 싶어서 불렀던 부서 이름인데 생각보다 입에 착 달라붙는 어감이 좋아 지금까지 유콘제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올해 새롭게 창설된 부서이고 활동은 말 그대로 학교의 다양한 활동상을 유튜브 콘텐츠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부서입니다!

Q. 영상 촬영부터 기획까지 직접 다하나요?
A. 저희는 총 9명인 소수 인원으로 편성된 문체부이지만 부서장(총괄)을 제외한 촬영팀, 기획팀, 출연팀 3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직접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은 생도들의 문체부 시간만으로 완성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공보정훈실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Q. 찍었던 영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찍은 영상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여러분이 현재 유튜브브에서 보고 있는 영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지만 모두 1가지의 목적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학교 홍보입니다.

Q. 유콘제 부서만의 장점이 있다면?
A. 유콘제 부서만의 장점은 타 부서처럼 한 장소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여러 장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더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찬 부서이자 소통으로 화합을 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에게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소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마지막으로 부서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부서원들이 생각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한층 더 재밌고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과 함께 더 발전하는 부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부서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유콘제 생도들



57기 기자생도 박군호 이규용



칼럼 I 화랑도 리더십 재고



자신이 화랑 혹은 화랑의 후예라고 생각하십니까? 맹랑한 질문이다. 국군이 사상 기초를 화랑에 두는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답은 하기 어렵다. 하지만 반대로 긍정하기도 어렵다. 화랑의 맥이 부대명, 군가, 군 사생관에 깊숙이 녹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화랑과 직접 연결하는 메타인지에서 철학적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묻는다. 화랑이 무엇입니까?

마라톤과 테르모필레 전투의 기록이 고작 몇 문단이듯 천년 제국 신라의 화랑 원전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 파편적으로 남아있기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역사학계

의 논쟁은 한·중·일의 이해관계까지 엮여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대중의 역사의 식속 화랑상은 뚜렷하다. 김유신과 관창 등 군 관계 이미지와 삼국 통일의 주역이라는 시대사적 의의가 그것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훈 정립을 위해 화랑을 호명한 바의 사상적 계보다. 하지만 동시대에 일본제국도 치밀하게 화랑 담론을 정립해 나갔다.

일본은 화랑을 고대 청소년 결사체이자 미신 숭배 집단 그리고 전사단이라 했다. 그 이유는 첫째, 삼국이 경합하던 6세기 한반도에 선사에 준하는 낙후된 문명 프레임을 씌우고 둘째, 자기 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는 이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일제 관제 사학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 그렇다면 화랑이란 무엇인가 다시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사기에는 신라대에 화랑 200여 명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10명 내외의 행적만 기록되어 있고 그중 전선에서 활약한 이는 넓게 잡아도 4명이다. 수치상 수백 년간 2% 어간의 활용상이다. 네 화랑이 역사에 남은 이유는 전선에서의 활약이 기억해야 할 만한 돌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즉, 모든 화랑

이 전사적 기능을 기본으로 하는 군사제도였다면 기록의 가치가 없었을 것이다.

거서간·차차웅 등 제정일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신라 상대 이후, 불교 수용으로 왕권이 강화되고 관료제가 분화하며 국가가 안정되자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은 왕족 여성에게 이양되었다. 6세기 현재, 표면적으로는 여성 종교 지도자인 원화 제도를 이용한 인재 영입 및 관리 체계는 시행착오를 거쳐 화랑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김유신도 화랑이던 소년기에 외세 침략에 즈음하여 굴로 들어가 하늘에 제사하여 호국하는 신분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며, 사서에 이름을 올리게 된 화랑들은 유불선의 ‘효·충·선(孝·忠·善)’을 행하는 미증유의 사회 지도자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세속오계를 반추한다. 시계열 실증으로 계율이 화랑제와 같은 시기의 것, 논리 실증으로 왕이 직접 화랑을 임명하는 바와 같이 그것도 선언 문임을 밝혀야 하지만 그 근거를 두 가지 모두 찾을 수 없으며 개연성으로 풀이하기에는 비약이 따른다. 따라서 화랑을 화백회의, 골품제, 삼교, 원화, 낭도와의 연관성에서 밝히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인식론이 대중의 역사의식으로 형성되기 위한 매개로 KBS 역사 다큐물이 관련 논의를 일단락 지었다.

화랑은 군제가 아니며 종교적 기능을 하였다라는 점이다. 화랑이 전문 전사단이 아니었음에 실망하기는 이르다. 화랑은 왕이 직접 임명하였고 실종된 화랑의 복귀에 온 백성의 세금 3년 치를 면해줄 만큼의 가치를 보인다. 왕이 된 화랑도 둘이다. 왕과 화랑이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음에는 신라 즉왕, 왕 즉 미륵, 미륵 즉 화랑 따라서 화랑은 신라 이데아의 정수였던 것이다. 이에, 나말 문장가 최치원은 화랑을 ‘효·충·선’의 기치 아래 신묘한 기풍으로 나라를 밝힌 청년 인재로 규범하였다. 화랑은 시대 요구에 따라 주물되었다. 이에 일본의 역사 왜곡 전거에 공명하는 자학 사관을 바로잡고, 민족사학계의 국난 해소를 위한 상징화 그리고 해방공간에서 국방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필요에 따라 화랑의 시대사적 의의를 전사단으로 제한 시켰음을 극복하기 위해 화랑 리더십의 재정의의를 제언한다.

군인은 화랑이 아니어도 좋다. 다만 미 육사가 그리스의 자유 수호 정신을 본교 심벌에 형상화하여 기리듯, 화랑훈 만큼은 직시해야 한다. 화랑도에 국가를 방위하는 숭고한 가치와 나란히, 인본주의의 높은 윤리인 ‘효·충·선’이 있어 나라 곳곳을 환히 밝혔던 미풍이 발현되었음을 먼저 알고, 이를 좇아 인격을 도야하고 직분에 헌신하는 실천과 의지야말로 1500년간 이어진 정신문화유산 화랑의 본질이라 하겠다.

칼럼 II ‘계명구도(鷄鳴狗盜)’에서 얻는 교훈



중국 ‘전국시대’ 당시 현재 산둥반도에는 제나라가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제나라에는 ‘민왕’이 재위 중에 있었는데, 왕의 인척 중 ‘맹상군 전문’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당시 전국시대의 각 나라는 부국 강병을 위해 중국 전역의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제나라,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의 위력 귀족으로 인재 등용에 힘쓴 네 명의 인물이 있었다. 이들을 ‘사공자’ (조나라 평원군 조승, 위나라 신릉군 무기, 초나라 춘신군 황철, 제나라 맹상군 전문)라 불렀으며 맹상군 전문은 이들 사공자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진나라에는 소왕이 재위 중이었으며, 진나라 소왕은 맹상군의 현명함을 소문으로 듣고 자신의 동생 경양군을 인질로 제나라에 보내고 맹상군을 초대하였다. 맹상군은 처음에 초대를 거절하였으나 다시 초대하였기에 진나라로 가게 되었다. 진나라 소왕은 맹상군을 진나라의 재상으로 삼을 생각이었으나, 주변의 신하들이 맹상군은 제나라 사람으로 재상으로 삼는다면 진나라보다는 제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이라 간언하자 마음을 달리 먹고 맹상군을 잡아 가두어 죽일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안 맹상군은 진나라 소왕의 후궁에게 자신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그 후궁은 맹상군이 가지고 있던 ‘호백구(여우의 흰 겨드랑이 털로 만든 털옷)’를 갖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맹상군이 가져온 호백구는 이미 진나라 소왕에게 선물로 바친 뒤였다. 이에 맹상군은 뚜렷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데, 함께 온 맹상군의 빈객 중에 도둑질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개 흉내를 내어 궁궐에 들어가 호백구를 훔쳐 나와 그것을 후궁에게 선물하자 비로소 후궁의 도움으로 궁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뒤늦게 맹상군을 풀어준 것을 후회한 진나라 소왕이 군사를 풀어 뒤쫓게 하였다.

궁궐을 빠져나온 맹상군은 당시 진나라 국경의 수문인 ‘함곡관’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진나라 법에 닭이 울어야 관문을 연다는 규정이 있어서 함곡관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끝자리에 있던 빈객이 닭 울음소리를 내자 인근의 닭들이 따라 울게 되었고 관문이 열려 무사히 함곡관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맹상군이 처음에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과 닭 울음소리 내는 사람을 빈객으로 받아들였을 때, 다른 빈객들은 두 사람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였으나 맹상군이 곤경에 빠지자 그 두 사람이 구해낸 것이다.

우리 생도들도 임관하게 되면 전·후방 각지에서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여러 명의 소대원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진급하여 계급이 올라가면 더 많은 부하를 지휘하게 된다. 그렇게 만나는 많은 부하는 평상시에는 내 지휘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하는 동료가 되는 것이며, 전시에는 나의 뒤를 맡길 수 있는 전우가 되는 것이다. 내가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것도 나만의 역량이 아닌 내 부하들의 작은 능력과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부하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지휘관, 존경받는 군인이 되길 바란다.



저명인사칼럼 I

일식당에서 배운 교훈들



박재항

사단법인 오늘은 이사장
한림대학교겸임교수

“초밥 한 점에 밥알 몇 개 잡는지 물어 보라.”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출장을 오신 사장님을 모시고 사무실 근처의 단골 생선회 식당에 갔다. 열심히 생선 초밥을 만들고 있는 일본 주방장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주저하고 있는 필자를 채근했다. 사실 사장님 이전에 왔던 출장자 한명이 같은 질문을 요청했다가, ‘생선 초밥에서 밥알 수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면박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같은 질문을 또 하기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에 항상 같은 수의 밥알을 쥐어서 초밥을 만드는 ‘달인’이 출연하여 꽤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웬만한 생선회 식당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손님들이 많았다고 한다. 몇 차례 미적거리자 거의 명령조로 ‘들어보라니까’라고 하셔서, 결국 실행에 옮겼다. ‘왜 한국인들은 별것도 아닌 걸 계속 묻나요?’라고 반문하면서, 250알에서 300알 정도 잡는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듣고 사장님은 “보통 밥알을 저 정도 잡는데 말야”라고 하시면서 이야기의 방향을 살짝 틀었다.

“00호텔 일식당 주방장에게 물어봤었지. 도시락으로 나가는 거면 300알 이상, 식당에서 하는 거면 250알 정도 한다는 거야. 식당 안에서는 부족하면 더 시킬 수 있지만, 밖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양이 부족하면 곤란하다는 거지.” 그리고 보니 점심 식사 손님은 밥알을 많이 잡은 초밥을, 저녁에는 안주용으로 밥알 개수가 적은 초밥을 내놓는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질문을 시키면서 화제를 이끈 이유를 결론으로 얘기해주었다. “모든 경우에 통하는 법칙은 없어.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거야.”

또 다른 일식당에서는 같이 간 친구가 회를 썰고 있는 주방장에게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는지 물었다. 그 주방장의 나이가 어려 보였기 때문이다. 초보 같다고 친구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다가 참지 못하고 물어본 것이었다. 대답 대신 주방장은 자

신이 쓰고 있던 칼을 보여줬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과일 깎는 칼보다 약간 더 큰 정도였다. 일식당 주방장이 회를 썰는 데 쓰기에는 너무 작지 않나 생각할 때쯤, 그 칼을 옆에 놓고 주방장은 집에서 쓰는 식칼보다 훨씬 크고 긴 칼을 보여주었다. 큰 칼을 같이 쓰면서 먼저 칼처럼 작아졌다고 했다. “이게 제가 쓴 다섯 번째 칼입니다.” 칼 한 자루를 얼마나 오래 쓰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칼이 반쪽이 되도록 같이 쓰는 기간과 일식을 연마하며 뿌린 땀의 무게가 두 칼을 대조하면서 그대로 전해졌다. 칼이 반쪽이 되고, 그러면서 몇 개를 갈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대접받고, 내공을 인정받는 주방장이 된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유치환의 시 ‘깃발’의 마지막 부분이다. 어느 일식당에서 자연산 복어가 들어왔다고 얇게 저민 껍질이 붙은 복어회 몇 점을 단골을 위한 서비스라며 준 적이 있다. 입에 넣고 씹자마자 바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필자의 반응을 보던 주방장이 말했다.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복어가 품은 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치명적인 맹독성인지라 복어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말 잘하는 복어 요리사는 독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먹는 사람의 입술이 떨릴 정도의 맛을 보게 한다고 한다. 독을 느낄 수는 있으나 치명상을 주지 않는 복 요리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요리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필자의 입술을 떨게 만든 복어를 준 주방장에게 물으니 이렇게 답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복어 요리를 만들었지요.” 그때 ‘깃발’ 시의 마지막 부분을 자연스럽게 변형시키며 속으로 읊조렸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위험하고 맛 좋은 복어를 맨 처음 회로, 요리로 내놓은 그는’.

과거에 들었던 일식당에서 배운 교훈들이었다. 정리를 해보자. 첫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법이 있다. 오로지 한 방식, 배운 것에만 얽매이지 말고 유연함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인정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꾸준히 갈고닦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명한 셰프의 뒤에는 그들이 갈고 닦고 버린 수많은 칼이 있다. 셋째, 하나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는 목숨을 걸만한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가르침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다. 꼭 일식당이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생활의 한 순간, 한 장면, 한 사람들 모두에서 교훈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저명인사칼럼 II

불확실성 시대, 리더는 매 순간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이병욱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서버이버저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미국과 중국 간 패권전쟁 등으로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같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대비하는 시나리오 경영의 대명사이자 세계 석유 재벌인 ‘더치 쉘’은 1973년 10월 6일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가 닥쳤을 때 시나리오 경영으로 만반의 대비를 했다. 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 정유업계 7위에서 2위로 단숨에 올라설 수 있었다. 쉘의 시나리오 경영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상황 이슈들을 고려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정리한다. 2단계로 기술·브랜드·고객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쟁사를 고려한 자사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한다. 3단계에서는 사업의 중·장기적 비전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4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구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상황에 적합한 최종 전략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전략 대안들을 탐색하고,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10대에 걸쳐 300년간 장수한 가문이 있다. 바로 경주 최씨 가문이다. 경주 최씨 부자의 가훈을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 조직의 특징인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조화와 균형감을 잘 갖추고 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으로 자리를 하지 말라. 이는 오늘날의 의미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은 후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여섯째, 사방 백 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러한 가훈들은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추구하라는 지속가능성의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군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사관생도들은 불확실성 시대에서 나타날 어떠한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매사에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환경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균형감을 유지하려는 자세 함양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구 시민으로서 지구 환경보호와 보전에 대해서도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사회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해야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할 수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1 <#러스틱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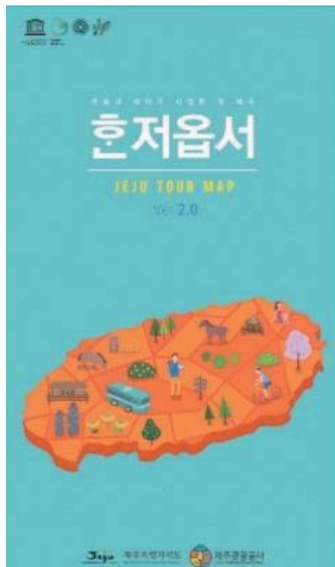


이수진 박사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촌’스러움이 ‘합’해지고 있다. 시골은 더이상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후된 공간이 아니다. 일상마저 버거운 도시인에게 촌은 따분함을 넘어서는 여유로움과 불편함을 무릅쓰는 날 것의 경험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온다. ‘러스틱라이프’란 날 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에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向) 라이프스타일을 지칭한다.

러스틱라이프는 도시와 단절되는 ‘이도향촌(離都向村)’이라기보다는 일주일에 5일 정도는 도시에 머무르는 ‘오도이촌(五都二村)’하는 삶을 실천하며 소박한 ‘촌’스러움을 삶에 더하는 새로운 지향을 의미한다.



제주관광공사가 온·오프라인으로 배포 중인 제주 관광 지도 ‘훈저옵서’
출처: 제주관광공사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도시와 시골 생활의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러스틱 라이프의 층위는 ‘떠나기-머물기-자리잡기-둥지틀기’의 단계로 다양화된다. 먼저 도시를 ‘떠난’ 소비자는 자연에 취하며 휴식을 즐긴다. ‘촌캉스(촌+바캉스)’, ‘옥캉스(한옥+바캉스)’라는 신조어처럼 시골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요소를 여행에 반영한다. 특별한 맛집을 찾지 않아도, 그저 멍하게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핫플(핫플레이스)이 된다. ‘멍맛집’, ‘뷰맛집’이 대세가 되고 있다. 시골 여행은 그야말로 아날로그 경험을 극대화하

는 여가 중 하나다. 스마트폰은 비행기 모드로 맞춰놓고, 현지인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돌아다니는 게 더 재밌다고 말하는 요즘 소비자들. 2020년 한 해 동안 제주관광공사가 온·오프라인으로 배포 중인 제주 관광지도 ‘훈저옵서’를 5만 8000여 명이 우편 배송을 신청했다는 소식으로도 시골이 주는 아날로그 감성에 취하려는 이들의 욕구가 전해진다.

혹자는 시골에 ‘머물며’ 색다른 일상을 만든다. 시골에서 더 길게 머무는 체류형 여행인 ‘한 달 살기’는 새로이 등장한 트렌드다. 시골에서 지내며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촌에서 수업도 듣고, 일도 할 수 있다. 발맞춰 ‘농어촌유학’이 부각되고 있다.

이전에도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해 학교 간 자매결연을 맺은 형태의 교류 수업은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원격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에서 수강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된 점에서 이전의 교류수업과는 상이하다. 온라인으로 지식을 쌓고 오프라인으로 자연의 정취를 느끼면서, 전인격적인 교육이 완성될 수 있는 면이 있는 셈이다. 더불어 해외에서는 ‘워케이션’이라 하여, 휴가지에서 근무하는 형태도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는 회사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출처: 울산 상북초 소호분교 숲학교시간, 소호산촌유학센터, 국민일보

도촌 모두에 거점을 마련하는 ‘듀얼 라이프’(dual life)를 실현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보다 일상화된 러스틱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도촌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 ‘자리잡기’를 통해 거점을 만든다. 도시의 장점인 ‘인프라 활용’을 누리면서, 시골의 자연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특히,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이 라이프스타일을 주도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봉사활동 및 귀농에 대한 선호가 높은 세대다. ‘농막’이 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상품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약 4만 3000명이 농촌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만 8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60·70대에서 두드러졌는데, 2020년 기준 두 세대의 귀촌인구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9.4%, 16.2% 증가했다고 한다.

러스틱라이프 트렌드는 과밀한 주거·업무 환경에서 고통받는 대도시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시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경북 문경시는 29년 뒤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만든 지방소멸 위험지수로 따지면 지난해 전국 시·군·구 중 3위다. 이 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이하면 30년 뒤 이 지자체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인구가 7만 1000명인 문경시의 한 카페에 2019년, 약 8만 명이 방문했다. 방문객들이 다녀간 곳은 20년 넘게 방치되던 폐가를 개조해 만든 ‘화수현’(花樹軒)이라는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였다. 문경산에서 나는 8곡을 방앗간에서 빻아 만든 미숫가루, 문경 동로면의 청정한 오미자밭에서 딴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에이드처럼 문경시만의 재료에 트렌디한 감각을 입혔더니 많은 사람들의 명소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위축과 인구 감소로 고민이 큰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의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이 기회의 파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



출처: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농막에 자용 위태리스 설계를 적용한 모습, 조선일보



출처: 경북 문경시 신양면 현리 화수현 한옥 카페 ‘화수현’, 영남일보

사회 새내기, 그리고 투자의 중심 MZ세대

그들을 위해 제시하는 바람직한 재테크의 3원칙

성경 희(‘주호선생’, 리얼스탁애널리스트)



더이상 재테크는 고 자본가만을 위한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다. 현재 한국 금융의 중심, 여의도의 수많은 금융사에서 MZ세대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MZ세대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이다. 금융사들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들을 사회 새내기, 돈이 안 되는 고객으로 정의 내리던 흐름에서 ‘표적 고객’의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MZ세대는 변화에 유연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에 가까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국제금융센터의 ‘MZ세대가 기대하는 금융의 모습’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에게 다음의 금융 생활패턴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재테크와 금융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2. 예금이나 적금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 투자가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투자방식을 리드하고 있다.
3. 커뮤니티,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정보를 취득한다.

이렇게 MZ세대는 현재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등 각종 금융 플랫폼 업체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투자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세를 이끈 현(現) 재테크 시대의 주역이다. 따라서 이 세대들이 더욱 바람직하고 건강한 재테크를 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다음의 3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1. Profitability(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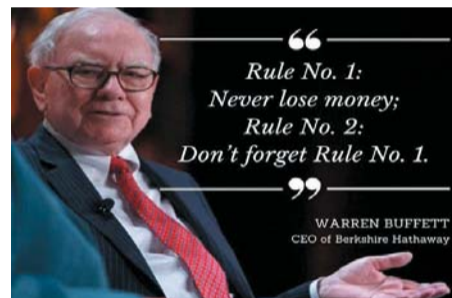
재테크의 목적은 자산의 증식, 즉 수익의 극대화이다.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예금이나 적금 등의 상품은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이 낮다.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지극히 안정성만 추구하면 상대적 빈곤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급등 테마주

매매, 가상화폐 매매, 해외주식 ETF, IPO 공모 등 약간의 리스크는 짊어지지만 법적 제도장치 하에 있는 상품이나 플랫폼을 통해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위의 금융 재테크 이외에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재테크 문화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예로는 ‘슈테크(슈즈+재테크)’를 들 수 있다. 희소성이 높은 한정판 신발이 가격이 치솟는 특징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이렇듯 재테크의 범위가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며 더욱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Stability(안정성)

‘가장 위대한 투자’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다. “1. 절대 돈을 잃지 마라. 2. 절대 1원칙을 잊지 마라.” 즉, 투자에서는 안정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인데, 이러한 리스크 관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 먼저, 내가 투자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은 상하한가가 없고 시간의 제한이 없는 가상화폐 시장이 변동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더 크다. 다음으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에 대하여 파악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대형주보다 테마주가,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이 리스크가 더 큰 것을 인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투자계획을 통해 투자해야 한다. 명확한 매수근거를 확립해야 하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종목에 비중을 두며 적절한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리스크의 관리는 수익 추구만큼 중요한 요소이며 투자자의 재테크 실력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성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3. Liquidity(유동성)

유동성은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현대 경제에서 유동성의 관리는 중요한데, 유동성이 크면 돈의 흐름이 원활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자금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중에 돈이 흐르지 않게 된다. 이러한 요소는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개인이 당장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를 했다면 현금이 필요할 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의 공격적인 상품 등을 헐값에 처분해야 해 원금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해당 투자 자산의 유동성을 파악해야 하며,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재테크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



현재 금융권은 상위 20%의 파레토 법칙에서 벗어나 MZ세대를 겨냥한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증권사에 신규로 개설된 계좌의 60% 이상이 MZ세대라고 한다. 이들은 공격적인 투자성향으로 테마주, 가상화폐 등의 고수익 재테크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수익의 재테크 수단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한다. 빠르게 산업이 발전하는 시대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이 재테크의 방식에서도 표출되는 것이다. 이런 재테크 문화 속에서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유동성 또한 추구하며 건전한 투자문화 주도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한다.

생명을 살리는 절절포 정신 (Never Never Give up Spirit)

동문(同門)의 소리 1

서 정열 장군(3사총동문회 사무총장, 제31대 학교장 3사20기)



오늘도 뉴스에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나오고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어 최고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어려움과 불편함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문과 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다시 되돌아보니 학교장을 할 때 충성대 식구들과 지내면서 보낸 2년이 참 행복했고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추억이 떠오르지만, 생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생도들은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다가 충성대를 떠날 때가 되면 어느 곳이 근무하기

좋은지를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그때마다 "내가 만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내가 근무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전에 가서 근무하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군 생활하다 보니 어디에서 근무하느냐보다 누구와 근무하느냐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마음이 통한 좋은 사람들과 근무할 때가 가장 열정이 생기고 가장 행복했지요. 매 순간이 소중한데, 같이 근무했던 좋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따라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생도들은 모두 장교가 될 인물입니다. 지휘하고 부하들을 통솔해야 하기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스펙이 화려하지 않지만 인생과 군 생활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을 할 때도 생도들에게 스펙만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활용해 자신 있고 당당하게 멋진 인생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학교 선배들이 육군3사관학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인생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교 전 많은 경제적 어

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왔던 일, 학비가 없어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일,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렸고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못해 안타까웠던 일 등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 자체로 인생의 멋진 이야기이며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스펙이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나만의 이야기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타 사관학교 출신이나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사람들과 생도들에게 늘 해주던 말이 기억납니다. 대표적으로 '절절포(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절절포 구호를 외치기

포기하기 시작하면 다음에 또 포기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5분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나,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긍정의 절절포를 제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말자, 부하와 가족을 포기하지 말자,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절포를 외쳤고 2012년 말부터는 머플러 형태로 제작하여 절절포 정신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절절포 운동은 제가 지금 전역을 해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머플러를 후배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머플러지만 이것을 보이게 벽에 붙이고 외칠 때 긍정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변화됩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가는 생도들이 살면서 또는 군 생활하면서 지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절절포를 떠올리며

참고 견디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절절포 정신을 전하고 이 정신으로 무장한 모두가 군 생활 속에서 또 사회에 나가 사는 삶을 사는 후배들에게 길을 밝히는 희망의 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전역 후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인생 속에 많은 기쁨을 주신 선·후배 동기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절절포 절절포 절절포 하이팅입니다!



52기 송은혜 대위 격려 및 장학금 전달식

지난 12월 7일, 총동문회장(14기 한동주)와 황명식 동문(18기)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총동문회를 방문한 52기 송은혜 대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 52기 최초 여생도로 임관한 송은혜 대위는 병참 장교로 임무 수행 중, 2020년 의과대학 위탁 교육 과정에 3사 장교 중 최초로 선발되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본과 4년을 거쳐 군의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3사총동문회



▲ 52기 송은혜 대위와 총동문회 임원진

23기 임관 35주년 학교방문

지난 12월 3일, 23기 동기회장 윤대광 등 8명이 임관 35주년을 기념하여 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23기 동문들은 학교방문 행사가 끝난 후 모교발전기금 350만 원을 기부했다. 3사총동문회



▲ 23기 임관 35주년 학교방문 행사

MZ세대를 이해하는 본질

동문(同門)의 소리 2

김상호(예비역 대위, 유튜버 '캡틴김상호', 3사 46기)



최근 들어 신조어처럼 들리는 MZ세대라는 말이 있다.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MZ세대 용사들이 많아지면서, 육군은 2021년 “MZ세대, 소통의 육군문화 혁신”이라는 주제의 행사를 진행할 정도로 MZ세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다. 필자 또한 육군이 주관한 행사에 초대받아 의견을 제시했으며, 마이크를 잡고 오랜 시간 발표를 진행했다.

행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다 보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옳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관행들을 올바르게 바꿔 나아가는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제시하면, “요

즘 세대들이라 그렇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등의 의견으로 무작정 MZ세대를 이해해버리고 이기적이며 관리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과연 MZ세대라 불리는 요즘 세대들은 정말 이기적이고 관리하기 어려울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교체된다 한들 본질만 변하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다. 그 본질은 바로 진실함이다. 시대가 변해도 내가 지휘하는 부대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내 상급자와 지휘관을 존경하며 모시는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대원이 신체가 불편한 곳이 있어 외진을 나간다고 해보자. 외진 결과를 물어보고 치료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현재 임무에 지장은 없

겠는지 등의 부하를 챙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일과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일과 시간 외에도 부하를 챙겨야 하는 것이 상급자로서의 당연한 자세다. 또한, 상급자와 지휘관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고 일부분을 내가 해결해드리든 혹은 함께 고민해 부담을 덜어드리든 것 또한 지휘관에 대한 존경의 의미이자 지휘관을 모시는 당연한 부하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러한 진실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있는가? 물론, 흑자는 부하를 챙기는 것에 이러한 말도 한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무슨 유치원 선생님도 아니고...” 하지만, 내 부하는 전시에 내 목숨을 지켜주고 나 대신 피를 흘려 줄 수 있는 전우이다. 그러한 전우의 마음을 얻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어려운 것일까? 그렇게 부하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백번이고 천 번이고 할 것이다.

또, “MZ세대는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라는 핑계로 부하를 챙기는 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간섭과 관심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관심이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도

와주는 것이며, 간섭이란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 혹은 내가 귀찮아지지 않기 위해 통제하는 것이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간섭과 관심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하며, 수많은 부하를 지휘하는 장교들이 부하에 대해 갖는 관심은 당연하다.

결국, MZ세대라 말하며 요즘 용사들을 지휘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일부 맞는 의견일 수도 있으나 결국 지휘관(자)가 하기 나름 아닐까? 정말 내 부하를 위해 진심으로 마음을 써 봤는가? 본인 또한 본인의 지휘관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만큼 나는 내 부하에게 어떠한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고민해보았으면 좋겠다.

“내 소대원은 여러 명이 될 수 있지만, 내 소대원의 소대장은 1~2명이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소대장, 장교로 기억되고 싶은가? 과연 여러분은 개인의 영달, 개인의 여건보장을 위해 장교가 되었는지, 아니면 최소한 내 부하들의 진정한 리더가 되고자 장교가 되었는지 수없이 고민해보길 바란다.

18기 임관40주년 행사

지난 11월 19일, 18기 동기회장 최기선, 금융백 前 학교장 등 11명이 임관 4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18기 동문들은 환담 후 중성의식을 참관, 학교시설 견학 등을 함께하며 추억을 나누었으며, 중성의식이 끝나고 모교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3사총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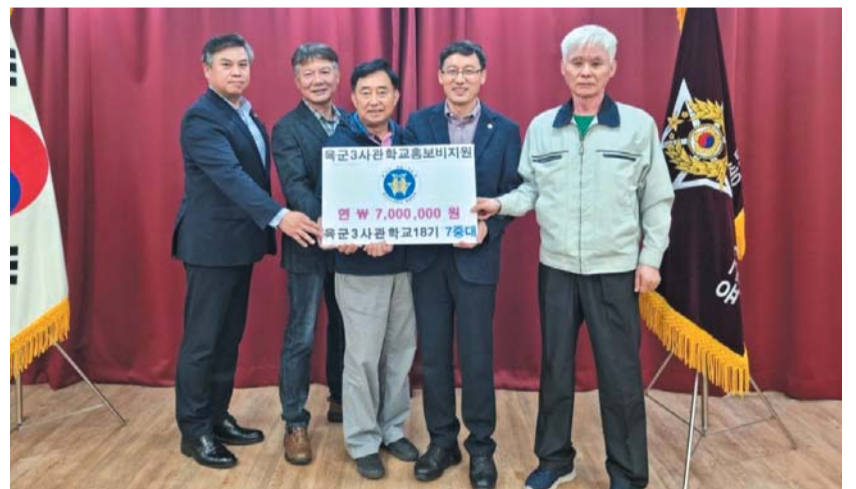


▲ 18기 임관40주년 행사

18기 7중대 회장단 총동문회 방문

지난 11월 3일, 18기 7중대 회장 김종성, 前 회장 정영욱, 황명식 등 회장단 3명은 총동문회를 방문하여 사무총장(20기 서정열), 사무국장(24기 유진권)과 동문회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학교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간 7백만 원을 기부하기로 협의했다.

3사총동문회



▲ 18기 회장단과 총동문회 임원진

52사단 방문 격려 및 위문금 전달

지난 12월 16일, 총동문회 임원진들이 제52보병사단을 격려차 방문하여 위문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한동주 총동문회장(왼쪽)과 제52보병사단장 김호복 소장(오른쪽)



55사단 방문 격려 및 위문금 전달

지난 12월 16일, 총동문회 임원진들이 제55보병사단을 격려차 방문하여 위문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한동주 총동문회장(왼쪽)과 제55보병사단장 배현국 소장(가운데), 유진권 사무국장(오른쪽)



